

1장 : 들뢰즈/가타리의 생성존재론

◆1교시 : 차이생성을 기반으로 한 ‘생성존재론’

▲천 개의 고원

미학강의를 맡게 된 김숙경이라고 합니다. 제목을 유목미학이라는 지은 것은, 들뢰즈/가타리의 천 개의 고원을 읽으신 분이 많으실 걸로 압니다. 천 개의 고원 14장을 보면, ‘매끈한 것과 흠이 패인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고원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미학 모델이라는 한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유목민 예술이라고 제목을 달아 미학을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유목 미학이라는 제목을 따왔습니다.

천 개의 고원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천 개의 고원은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수많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신 분석학을 다룬 부분도 있고, 생물학, 언어학, 수학, 물리학, 문학, 미술, 음악 등 모든 분야가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천 개의 고원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수많은 개념의 쌍이 존재하는데, 그 개념들이 한 고원에 국한돼 정해진 게 아니라 고원들마다 거듭해서 등장하기도 하고 변형된 형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마치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인드라[indra] 인도의 전통 신인데 불교에 흡합되면서 제석천(帝釋天 : 불교 수호신의 하나)이 되죠. 인드라가 천공을 관장하는 신인데, 무기를 두 개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바즈라'라고 해서 번개를 치는 방망이 같은 것이고, 또 하나는 그물망으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투명한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물망이에요. 그래서 ‘인드라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인드라망을 무기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확실히 아는 바가 없지만, 아마 투명한 보석들이 서로를 비추어서 중중무진 이어진다고 해서 중중무진(重重無盡)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마치 인드라망의 보석들처럼, 천의 고원도 서로가 서로를 비춘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천의 고원은 부정형의 다면체의 돌이나 보석과도 같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면에서만 보아서는 천의 고원의 전부를 이해하기 힘들고요, 각 고원들마다 다른 내용이 있고 같은 개념이라도 어떤 고원에서는 그게 숨어 있고 어떤 고원에서는 그게 드러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들 말하죠. 천의 고원은 한 권 전체를 통독을 한 후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일본 교토에 가면 료안지라는 절이 있어요. 특색이 있는데, 절 안에 정원이 있는데 하얀 모래가 깔려 있고 그 안에 15개의 돌이 놓여 있어요. 신기한 건 어느 방향에서 봐도 15개가 다 안 보인다는 거죠. 다각도의 관찰을 요구하는 거죠.

천의 고원도 부정형의 다면체 돌과 같은, 제 말에서 느낄 수 있듯이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물론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 책입니다만,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반영**

하고 내용이 접속하고 넘나들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복잡하고 이질적인 내용이라도 그 밑에 공통의 물줄기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면, 한결 천의 고원을 읽기가 쉬워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유목 미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생성존재론

아주 이질적이고 다양한 내용들이 넘나드는 천의 고원을 흐르는 공통의 물줄기가 바로 ‘차이생성’을 기반으로 하는 생성존재론입니다. 제가 드린 강의록을 보시면, 많은 개념들을 될 수 있으면 한문과 영어나 불어를 영영해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차이생성이라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데, 바로 들뢰즈/가타리만이 가진 생성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유의 세계를 얘기할 때, 플라톤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철학을 얘기할 때는 ‘동일성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동일성이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은 존재죠. 현실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플라톤의 경우는 현실에서 순수한 동일성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항상 불변의 참 존재로서의 이데아를 만들어 내죠. 플라톤에서 시작된 동일성의 철학은 이어져서 서양철학의 큰 줄기를 형성하죠.

이 동일성의 철학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차이의 철학’을 들고 나오죠. 본격적으로 차이의 철학이 등장한 것이 구조주의에서 주장하게 되죠. 동일성이라는 것은 차이에 의해서 형성되고 구성된다는, 간단히 말하면 차이를 우선하는 주장이 구조주의에서 시작되는데, 구조주의를 통해서 차이철학이 동일성에 우선하는 걸 설명할 수 있는데요. 구조주의 이후에 나오는 게 들뢰즈의 차이 철학입니다.

소쉬르의 기호학으로 동일성과 차이의 철학에 대해 가장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기호학에 대비해서 얘기하는데, 언어에 있어서는, 시니피앙은 음성적인 것이죠. 시니피에는 언어의 의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쉬르 이전의 전통형이상학에서의 언어라고 하면, 기표는 기의에 종속된다고 설명하죠. 그런데 소쉬르의 경우는 기표들의 차이에 의해 기의가 결정된다고 하죠. 꽃이라고 하면, 꽃이라는 음성적인 이미지가 기표에 해당하고 꽃의 의미에 해당하는 게 기의죠.

소쉬르가 주장하는 건, 꽃이라는 것 자체에 꽃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꽃과 다른 이미지와의 차이에 의해 의미가 결정된다는 거죠. 꽃은 아무가 아니고, 돌도 아니라는 식으로. 풀도 아니라는 식으로. 어떤 기표들의 차이에 의해서 기의가 결정된다는 건데.

저도 굉장히 어렸을 때, 소쉬르와 같은 생각을 여러분도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왜 하필이면 하늘은 하늘이고 짙은 짙이라는 굳이 그런 음성적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음성적 이미지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수궁을

한 기억이 납니다.

구조주의는 차이가 동일성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후로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는데, 우리가 차이 생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비교를 해서 데리다의 보통 우리가 차연이라고 하죠. ‘차연’에 대해 설명하면, 기표들의 차이에 의해서 기의가 결정된다고 보는 게 소쉬르의 주장이라면, 데리다는 기표들의 차이로도 기의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표들의 차이라는 게 한정된 게 아니라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게 차이 + 연기라고 하는데, 공간과 이미지와 시간적 이미지로. 그래서 시간적으로 무한히 연기된다는 거죠. 의미가 결정될 수 없다는 건 존재의 불확정성, 존재의 비결정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은 기표예요. 기표의 차이가 기의를 결정할 수 없듯이 아무리 차이를 갖다댄다고 해도 그것이 존재를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들뢰즈의 경우에는, ‘차이 생성’을 얘기하죠. 데리다랑 다른 점이, ‘생성’을 얘기한다는 것. 데리다가 ‘연기’를 얘기한다면 들뢰즈는 생성을 말하죠. 그러니까 데리다는 존재의 결정불가능성, 고정적 존재는 없다는 거죠. 들뢰즈는 차이를 생성하는 것이 바로 동일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데리다가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면 들뢰즈 쪽은 긍정적 이미지가 강하죠.

차이들이 생성하는 과정 그 자체를 생명 자체를 차이 생성에 두는 거죠. 외부에 동일성이라는 초월적 존재들, 삶을 떠난 존재들로부터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무수한 차이들이 응결된 것이 동일성이고 주체고 존재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구조주의적인 면에서 데리다와 들뢰즈의 의견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은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와 연기에서 데리다는 ‘차연’을 말하고, 들뢰즈는 차이 생성을 주장하는 거죠. 불교와 비교하면, 공(空) 사상이 데리다와 가깝고요. 들뢰즈는 무상(無常)론이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요.

동양 사상과 간단히 비교한다면, 데리다가 도가 쪽에 가깝고, 들뢰즈는 기(氣). 데리다가 공이라면 들뢰즈는 무상론에 가깝고. 항상됨이 없다는 거죠. 늘 변하니까. 생성하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변하고 창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상론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데리다는 도가 쪽, 들뢰즈는 기(氣)쪽에서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2교시 : 기계의 접속과 배치

▲초월성의 사유와 내재성의 사유

여러분들 강의록을 봐주시면요, 차이의 생성을 기반으로 한 생성존재론의 원리가 천의 고원에 공통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원리가 여기에 등장하는 개념, 여기 개념이 쌍으로 많이 등장하는데, 거기에 생성존재론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생성존재론의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요, 어떻게 각 개념에 적용되는지 나아가 유목미학에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 ‘초월성의 사유’와 ‘내재성의 사유’라고 적힌 부분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설명돼 있는데요. 잠깐 읽어보면,

[서구의 전통 사유체계는 초월성의 사유라 할 수 있다. 초월성의 사유란 이데아나 신, 법칙과 같이 존재의 바탕을 이루는 ‘제1원리’를 찾아내고]

여기서 제1원리라고 하면, 보편의 원리, 존재의 근원이 되고, 모든 것의 근원한다고 할 수 있는 초월적 일자를 뜻하겠죠.

[그것에 근거하여 모든 존재를 설명하는 사유방식으로 신이 세계를 창조했다거나 주체가 세계를 인식한다고 하는 식의, 모든 사유의 정초를 삶의 외부에 두는 사유를 말한다. 반면 천개의 고원의 내재성의 사유라 할 수 있다. 내재성에는 외부가 없으며 그 자신 이외에 어떠한 것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삶의 외부에서 존재의 근원을 찾는 것이 아닌 삶 자체를 창조적 역능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내재성의 사유에서 창조란 동일성의 재현이 아닌 스스로를 창조하는 것이며 내재성의 사유 안에는 창조의 원천이 되는 발생의 요소들, 이른바 ‘차이생성’을 기반으로 하는 생성존재론의 원리가 흐르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일성을 재현한다는 말은 플라톤의 경우, 이데아를 불변의 참존재로 놓고 모든 현실 세계의 모든 존재가 이데아의 투사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재현이라고 하는 거죠. 신의 창조도 마찬가지겠죠. 신의 의지에 의해 피조물을 창조하는 과정.

또 어떤 법칙이나 원리, 구조가 하나의 중심이 되고 그로부터 모든 존재들이 터진다는 거죠. 그런 초월성의 사유에 반해, 천의 고원은 내재성의 사유라고 할 수 있죠. 삶 자체가 생명의 원인인 거죠. 따로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삶 자체가 창조, 생명, 삶 자체라는 거죠.

▲차이 생성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어떻게 차이 생성을 기반으로 생성존재론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건데, [생성존재론의 원리는 개체들을 지칭하는 ‘기계’로부터 출발한다. 여기서 기계는 ‘욕망하는 기계’이다. 욕망은 스스로 존재하는 힘이며 차이를 생성하는 역능이고 생명 그 자체이다]

<모든 기계들은 그 자체 내에 역능을 내포하므로 어떤 기계도 고정적인 동일성을 통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이생성의 터 위에서 동일성이 성립된다.> 아까 말씀드린 들뢰즈의 생성존재론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차이생성에서 동일성이 성립되는 과정은 단층적이지 않고 무한히 누층적이다] 어떤 인간의 몸을 두고 볼 때, 많은 기관을 가지고 그 기관 안에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죠. 가족

관계를 보면, 나란 사람과 부모, 형제 많은 핏줄들로 이뤄져 있죠. 이게 또 많은 관계에 적용될 수 있죠. 존재라는 것이 원인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삶 자체에서 많은 차이들이 누층돼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차이생성의 응결형태가 존재이고 동일성이며 동일성의 섬들은 차이생성의 바다 위에서 구성되고 해체된다.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낱알의 기계들은 접속을 통해 배치를 이루게 되는데 기계 자체는 단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접속을 통해 성격이 달라지고 기능이 규정되는 무규정의 실체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존재의 요소들을 하나의 기계라고 보는 거죠. 기계라는 것은 유기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그 자체로는 어떤 의미나 성격도 내재돼 있지 않은 단절된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 무규정의 실체들이 접속을 통해서 비로소 성격이 규정되는 거죠. 접속한다는 것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은, 손 하면 펜과 접속하면 글씨를 쓰는 손이 될 수 있고, 젓가락과 접속하면 음식을 먹는 손이 될 수 있죠. 다른 사람과 손을 잡으면 악수하는 손이 되듯이.

하나하나의 개체를 기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계라는 것은 지식화되기 이전의 부품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아무 의미도 내재돼 있지 않은 무규정의 실체들이 접속을 통해 성격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 기계들이 접속하고 배치를 이루게 되죠. **기계의 접속, 배치가 생성존재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계 자체는 단일한 속성을 가지지 않으며 접속을 통해 성격이 달라지고 기능이 달라지는 무규정의 실체들이다. 기계는 욕망하기 때문에 끝없이 변화한다. 기계의 접속하는 힘들은 배치를 통해 영토화를 이루는가 하면 배치가 풀리는 탈영토화를 이룰 수도 있다.“

[그리고 배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탈주이다. 기계 자체는 욕망을 본성으로 하므로 언제나 탈주선이 흐른다. 따라서 어떠한 접속도 탈주선을 허용하는 것이다. ‘기계-접속-배치-영토화-탈영토화-재영토화’의 라인은 바로 차이생성을 기반으로 하는 생성존재론의 원리라 할 수 있으며 수많은 이질적 내용들이 접속하고 넘나드는 천 개의 고원의 저변을 흐르며 무수한 개념과 개념 쌍을 가로지르는 공통의 물줄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계의 접속과 배치

이 생성존재론의 원리, 골자라는 것은 기계-접속-배치. 생성존재론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존재가 어떻게 형성되고 전재돼 가는가 하는 거죠. 기계라는 것 자체는 하나의 기계부속품처럼 무규정의 실체들이고, 중요한 건 이게 욕망하는 기계라는 거죠. 그것 자체는 생명의 근원이란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체에 있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삶의 원천이고 창조의 역능이죠. 무한한 잠재성을 갖는.

이 기계들이 이것 자체로는 무의미하지만 접속을 통해 배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존재라

는 거예요. 배치를 이뤄서 하나의 주체, 동일성을 결정짓는다 할까요. 그것 자체를 영토화라고 하고. 아까 탈주애기가 나오지만, 항상 욕망이기 때문에 기계는 항상 누수 된다. 욕망은 스스로 벗어나려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탈영화가 이뤄지고 다시 재영토화하는 라인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접속, 배치가 생성존재론의 핵심적인 원리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모든 개념에 적용되니까요.

처음으로 나오는 게 수목형, 리즘형인데, 바로 생성존재론의 원리를 한몸에 함축하는 개념이 리즘이에요. 나무 리즘의 개념 쌍을 비롯해서 많은 개념들이 쌍으로 나와요. 지도, 사본, 정주족, 유목족, 국가장치, 전쟁기계, 분자, 그램분자, 홈 패인 공간, 매끈한 공간 등 무수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모두 생성존재론의 원리가 흐르는 거죠.

이걸 염두에 두면, 이해가 한층 수월해질 수 있고요. 유목 미학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게 모든 개념이 다 펼쳐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는 겹쳐져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펼쳐져 있고 드러난다는 거죠. 유목 미학에서 특별히 드러나는 개념으로 추려서 준비해 왔어요.

천의 고원이 서로가 서로를 반영하고 비추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유목 미학 파트를 공부하시면 천의 고원을 읽을 때 다른 고원에 대해 이해가 되실 거로 생각합니다. 특히 유목 미학의 경우는 쉬운 편이에요. 많은 이미지가 동원되고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거든요. 미학파트를 공부하면서 다른 파트를 읽을 때, 개념이 이해에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고, 저도 읽어가면서 어느 고원에서는 몰랐던 부분을 다른 고원에서 이해하게 되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유목 미학을 통해서 그런 소득도 있었으면 합니다.

◆3교시 : 수목형 사유와 리즘형 사유

▲수목형과 리즘형

차이 생성을 기반으로 한 생성존재론의 원리를 한몸에 함축하는 게 리즘이라고 했는데, 수목이라는 것은 뿌리 자체가 다른 거예요. 리즘은 뿌리줄기라고 하죠. 줄기 자체가 분기를 해서 뿌리가 되는 거죠. 보통 수목형 나무는 중심뿌리가 있고, 중심뿌리로부터 잔뿌리들이 나오게 되죠.

[모든 존재가 하나의 중심으로 환원되는 전통 형이상학의 초월적 사유는 모든 뿌리들이 하나의 중심뿌리로 귀착되는, 다시 말해 하나의 뿌리를 중심으로 모든 뿌리들이 뻗어가는 수목형 사유체계인데 반해 비중심화 된 체계 속에서 발생과 변형을 존재의 특징으로 하는 생성존재론은 중심뿌리 없이 줄기 자체가 분기하여 각각 뿌리 역할을 하는 리즘형 사유 체계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이 제거된 리즘은 비유기적이죠. 단절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기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단절되고 이질적인 것들 간에 접속을 통해서 열린 체계를 이루며 접속되는 항들이 늘거나 줄어 따라 성질이 달라지는 가변적 체계이다]

나무뿌리라는 것은 중심뿌리가 있으면 잔뿌리가 나오죠. 잔뿌리가 아무리 다양하게 복잡하게 나온다고 해도 아무리 뻗어나간다고 해도 결국은 중심뿌리로 귀착되는 거죠. 반면 리즘의 경우는 수평으로 자라요. 줄기 자체가 분기되는 거죠. 리즘에는 감자가 해당하지 않을까요. 수련도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는 아무리 분기해서 나와도 여기로 귀착되고 성질도 똑같죠. 초월적 사유에 비유한다면, 동일성의 재현이에요. 그렇지만 리즘의 경우는 분기할 때마다 중심이 없기 때문에 성질이 계속 달라지는 거죠. 나무뿌리는 아무리 달라도 중심뿌리로 귀결되죠.

[그래서 리즘의 경우는 단일한 속성이 없고 비유기적인 기계들이 접속을 통해 배치를 이루고 접속에 따라 그 성질과 차원수가 달라지는 생성존재론의 원리를 그대로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생성존재론이 리즘형 사유에 함축돼 있다는 거죠.

수목형은 질서라 할 수 있는 성질이 다 들어가죠. 토대를 이루는 중심 뿌리, 위에서부터 차례로 서열도 있어요. 규칙이 있고 대칭성이 있고. 모든 질서와 관련한 성질을 다 갖춘 반면에, 리즘은 중심이니 계층이니 동일성, 규칙, 이항대립이 없고 끊임없이 연결하고 도약하고 이탈하는 요소가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천의 고원과 일반 책을 수목형과 리즘형에 비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고원과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일반 책은 하나의 봉우리를 갖는다고 할 수 있죠. 시작과 끝이 있고 하나의 정점이 있죠. 하지만 천의 고원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그냥 중간이에요 전부. 고원 자체가 중간 지점에 형성하는 게 고원이라고 해요.

고원을 시작과 끝이 아닌 중간에 형성되고 하나의 봉우리가 아닌 여러 개의 응집된 강도 높은 고원들로 무수하게 연결되고 이어지는 거죠. 중간이라는 곳은 생성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성존재론에서 생성한다는 것은, 기계가 접속을 통해 배치를 이루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생성의 핵심적인 요소는 선과 속도를 들 수 있어요. 점, 위치는 한 공간을 점유하는 거죠. 움직임이 없는 거죠. 시작과 끝이 그렇죠.

하지만 생성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창조가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런 곳은 시작과 끝이 아닌 중간이라는 거죠. 책에도 어떤 문구가 있느냐면, <리즘에는 점이나 위치가 없다. 선들만 있을 뿐이다.> 그 선이라는 게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하는 닫힌 공간 속의 선이 아니라 끊임없이 점을 비껴가는 선을 말하는 거죠. 과정이고 중도고.

그래서 <속도가 점을 선으로 변형시킬 것이다> 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그게 생성의 성격이 선으로 하나의 과정으로 중도에 있는 성격을 말하는 거고요. 이 속도도 생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속도가 초월적 개념이 아니라 내재적 개념이에요. 운동과 속도를 비

교할 때, 운동은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외연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라면, 속도는 그 자체 내에 갖는 절대적인 거죠. 빠르기라고 할 수 있죠. 자체가 갖는 성격이고.

또 속도라는 것 자체가 시작과 끝에서는 속도가 0이죠. 속도를 내는 곳은 항상 중간이죠. 생성은 항상 중간에 있다는 문구가 나오는데, 그 뜻이죠. 생성은 중도의 사유라는 거예요. 유목민이 늘 떠도는 것도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이란 사물들이 속도를 내는 곳이고,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출발점도 끝도 없는 시냇물이며, 양쪽 독을 감아내고 중간에서 속도를 낸다.” 이게 생성론의 특징을 굉장히 시적으로 적은 부분입니다.

시작과 끝은 위치를 점유하는 공간적 장소를 말하죠. 리즘의 경우는, 중간에서 생성 변화하고 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왜 천의 고원이 수목형이 아니고 리즘형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본과 지도

수목형과 리즘형 사유의 개념 쌍은 다른 개념 쌍에도 적용되죠. 그것을 사본과 지도에도 비유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사본이라는 건 원본을 복사하는 거죠. 초월성의 사유는 동일성의 재현이라고 했죠. 개념으로만 알고 있던 내용이 실제적인 비유를 통해서 더 와 닿는 거죠. 그런 면에서 천의 고원이 매력적인 책이 아닌가 합니다. 무수한 개념 쌍들을 내세우면서 그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유를 그 안에 다 담고 있어요.

사본은 동일성을 복제하고 재현하는 수목형, 초월성의 사유라고 할 수 있고요. 지도는 원본을 찍어내는 게 아니라 직접 실천과 실험 작용을 통해서 그리는 거죠. 지도는 cartography라고 해서 지도 제작, 그리기예요. 지도 그리는 과정이죠. 한마디로 생성이라고 할 수 있죠.

“지도는 자기 폐쇄적이고 늘 동일한 것으로 회귀하는 사본과 달리 모든 차원들 안에서 연결 접속될 수 있는 다양한 입구를 가진 열린 체계이다.” 같은 얘기죠. 수목과 리즘의 관계를 사본과 지도로 연결시켜 설명하는 거예요. 지도의 중도적이고 생성하는 성격. 동일한 것으로 회귀하지 않는 다양하고 열린 체계가 생성존재론이 가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